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학 교육에 대한 반성

— 한국학 지향 중국 대학의 경우를 중심으로

주옥파*

〈 차 례 〉

1. 서론
2.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학 교육의 연구사
3. 한국학 지향의 해외 대학에 맞는 한국문학 교육의 위상
4. 중국대학에서의 한국문학 교육의 발전 방향
5. 결론

1. 서론

21세기에 접어들어 세계무대에서 한국의 급격한 위상 부상과 함께 국제화시대에 한국을 널리 알리고 또 알고 싶어하는 광범위한 국제적 수요에 의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이 최근 한국의 안팎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세계적으로 한국어교육의 일대 전성기가 펼쳐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어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탐구 또한 날이 갈수록 열기를 더해 가고 있다.

한국 내의 한국어교육의 역사(강승혜, 2003)를 보면, 1960년대 몇 개 대학의 부속기관에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을 시발점으로 전개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은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 한국어 교육기관들이 양적으로 대폭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후반에 와

* 중국대외경제무역대학교

서는 '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 전공 학문 분야가 각 대학의 교육대학원을 중심으로 개설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개별 대학에 학위과정이 개설됨으로써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가 하나의 독립된 학문영역으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해외의 대학에도 한국어교육 열풍이 불고 있다. 중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1950년에 시작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은 2003년 11월 현재 32개 대학교에 한국어학과가 개설되었고 교수수가 215명이며 재학생 수가 3,127명(김병운, 2003)이라는 큰 규모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해외 한국어교육의 선두주자로 부상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그동안 한국어교육에 대한 본격적인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는 한국 국내와 해외에 여러 가시적인 성과로 축적되었다. 강승혜(2003)에서는 1960년대 이후 한국 내에서 발표된 720여 편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연구들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한국어교육 연구 동향을 분석한 바 있고, 중국의 경우 김병운(2003)에서는 1997년 한국어교육 학계에 학술대회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 2003년 11월까지 발표된 한국어교육에 관한 논문 230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연구 현황을 분석·보고한 바 있다. 이들 연구는 한국 내와 해외의 한국어교육 현장에 큰 힘을 실어주었고, 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이라는 학문분야가 학문적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긍정적 노력의 소산이라고 본다.

이들 연구의 주제 영역은 한국어교육 일반에서 출발하여 교과과정, 교육내용, 교수·학습 방법, 교재와 교육자료 개발, 학습자 변인, 오류분석, 평가, 교사교육, 졸업생 진로 선택에 이르기까지 한국어교육에 대한 폭넓은 이론적 탐구와 실천적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이 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한국문학 교육'에 관한 연구가 다른 연구 영역에 비해 극히 부진한 상태[1]에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이는 아직까지

1)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윤여탁(2003: 134)에서는 "... 실용성을 강조하는 외국어교육의 대체적인 경향 때문에 이(외국어교육에서의 문학교육)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은 편이다... 한국어교육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 적이 없음을 반성하고

한국문학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학계의 인식이나 관심의 부족에서 빚어진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학 교육'이라는 주제에 주목하면서 우선 기존의 한국문학 교육에 관한 논의들을 정리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학계의 연구 현황과 관심사를 제시함으로써 해외 한국문학 교육현장에 하나의 시사점을 마련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고, 이차적으로는 한국학 지향 중국대학의 한국어과 교과과정에서 문학교육이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 문학교육의 차원이나 영역이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지, 각 영역에서 한국문학이 어떻게 교수·학습될 수 있는지에 대한 초보적인 탐구를 함으로써 한국문학 교육의 틀 마련을 시도하고자 한다.

2.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학 교육의 연구사

지금까지 한국문학 교육 분야에서 진행되어 온 연구를 국내와 해외(중국)의 경우로 나누어 고찰해 보기로 한다.

강승혜(2003)에서는 1960년대 이후 2003년 2월까지 한국 내에서 발표된 720여 편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연구들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한국어교육 연구 동향을 분석한 바 있는데, 그 가운데 연구 주제별 분류 결과에 따르면 총 10개의 주제 영역[2]의 하나인 '한국어교육 내용'이라는 항목 아래 다시 문법, 어휘, 화용, 발음/억양, 문학, 한자, 문화라는 7항의 하위 주제가 구분되어 있고 총 213편의 논문들이 여기에 들어있다. 그 중 문법 관련 논문들이 67편(3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어휘교육에 관한 논문 45편이 있으며 문화교육 관련 연구가 39

자 한다."라고 역설한 바 있다.

2) 이들 주제영역으로는 한국어교육 일반, 한국어교육 내용, 한국어 교수·학습, 한국어 교재, 학습자 요인, 오류분석, 한국어 능력 평가, 웹기반/컴퓨터, 학습자 사전 개발, 교사 교육 등이 있다.

편이었고, 문학교육에 관한 논문은 12편밖에 안 되었다. 이는 그동안 국내 한국어교육 학계에서 문학교육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고 문학교육에 관한 연구도 매우 부진한 상태에 있어 왔음을 말해주고 있다.

기존의 논의들을 정리해 보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에 대한 관점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문학을 언어교육의 자료로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언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 것, 둘째, 문학을 문화교육의 일환으로 활용하고자 한 것, 셋째, 문학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문학을 문학으로 가르치고자 한 것(홍혜준, 2003) 등이다. 이들 논의는 서양 외국어교육 학계에서 제기된 문학교육에 대한 관점들[3]을 소개하면서 언어교육, 문화교육과 문학교육의 상관관계, 외국어교육에서 문학 작품 활용의 필요성과 효용성, 문학 작품을 통한 읽기교육의 가능성과 교수·학습 방법, 장르별 문학 텍스트(소설, 시, 설화 등)의 활용방안 등을 천착·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윤여탁(2003)에서 한국문학교육의 방향을 문학을 통한 한국어교육과 문학 자체에 대한 교육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한 것은 매우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문학 자체에 대한 교육에서는,

> "...문학교육의 목표를 한국학 또는 한국 문학의 차원에서 접근하여, 한국 문학 그 자체에 대한 교수-학습을 목표로 할 수 있다. 한국 문학의 실체와 속성에 대해서 교수-학습함으로써 문학 능력을 함양하고, 세계 문학 속에서 한국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해 이해함을 목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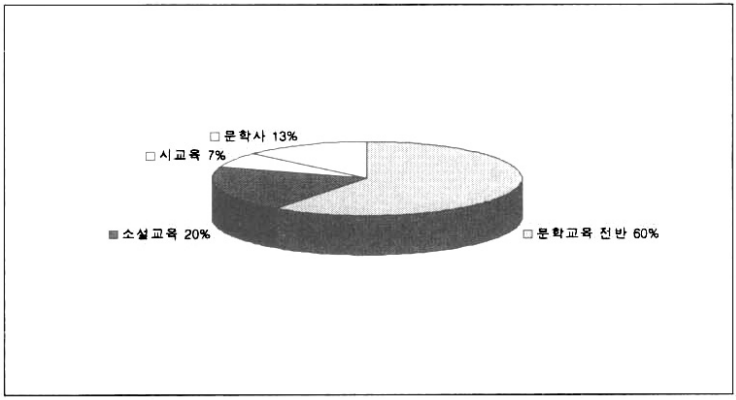
할 수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이는 특히 중국대학에서 행해지는 한국어교육의 경우에 매우 적합하며 큰 시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어서 중국에서 진행되어 온 한국문학 교육에 관한 논의를 정리해

---

3) C. Brumfit & R. Carter(1986)
J. Hills(1986)
J. Collie & S. Slater(1987)
G. Lazar(1993) 등 참조

보기로 한다. 지금까지 총 15편[4]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주제별로 분류해서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1> 중국에서 진행된 한국문학 교육 관련 논의

이들 논의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는 서영빈(2001), 이은숙(2001), 김대행(2002), 문복희(2003), 장영미(2003) 등을 들 수 있다.

서영빈(2001)에서는 '실용주의 교육'의 영향으로 문학 강의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등 현행 중국대학에서의 한국문학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한국문학교재의 편찬 원칙과 개발 방안을 소상히 소개한 바 있다.

이은숙(2001)에서는 고급단계의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어 교재와 한국문화 교재로서 장편소설 『혼불』의 타당성에 대하여 논술하였으며 아울러 〈문학선독〉 수업에서 장편소설을 교육 자료로 다룰 때 유의해야 할 점 등을 지적하였다.

---

4) 여기서 외국어교육에서의 한국문학 교육의 경우만 다루고, 민족어로서의 조선어문학교육의 경우를 제외하기로 한다. 이러한 논의로는 서영빈(2001), 이은숙(2001), 김정우(2001), 이은숙(2001), 문복희(2001), 주옥파(2002), 강효성(2002), 진문이(2002), 김대행(2002), 윤여탁(2002), 주옥파(2003), 지수용(2003), 문복희(2003), 권혁률(2003), 장영미(2003) 등이 있다.

김대행(2002)에서는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학을 교재로 하여 교수-학습하는 전통을 환기하면서 문학이 외국어로 의사를 소통하는 능력과 본질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즉 문학의 효용성을 천착한 뒤 한국어 능력 증진과 극대화를 위한 한국문학사 교재 구성의 기준을 자료성의 기준, 문화성의 기준, 대표성의 기준과 적정성의 기준 등으로 제시하였다.

문복희(2003)에서는 문학을 통한 한국어교육을 문화와의 통합적 교육 차원에서 논의하면서 한국문학 중에서도 오랜 시간 한국인의 꿈과 사상이 용해되어 있는 고전문학 중 신화를 통해 한국어를 교육하면 노릴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한국인의 심성 이해, 역사 학습, 문학적 어휘 습득, 한국인의 전통적 관습이나 가치관의 파악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그리고 독서교육의 일환으로 한국문학에서의 필독도서[5]를 50권 선정하여 목록을 작성하였다.

장영미(2003)에서는 현행 중국에서의 한국문학 교육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한계[6]를 지적하면서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문학사교재 개발의 당위성과 교재편찬 할 때 지켜야 할 원칙(체계성원칙, 지식성원칙, 취미성원칙, 문화적원칙) 및 유의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행해진 논의들을 종합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들을 추출할 수 있다.

첫째, 중국대학에서의 한국문학 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체계적인 문학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5) 문복희(2003)에서 제시된 필독도서 50선의 목록은 경원전문대학 〈대학국어〉 교재에 수록된 목록이라는 점에서 의문의 여지가 있다. 참고할 만한 자료이지만 내국인을 위한 국어교육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의 변별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 같다.

6) 장영미(2003)에서는 "문학작품에 대한 감상, 미적 체험보다는 언어지식을 위주로 한 어휘, 문법지식에 역점을 두었기에 문학작품 속에 반영된 사회적인 배경, 그 속에 내포된 민족적인 정서, 예술적 특점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문학사에서 일익을 담당한 위치해명과 문학사적의의를 홀시하고 …(중략)… 일반 문장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둘째, 한국문학 교육의 내용 범위를 문학사까지 확장시켰다.

셋째, 장·단편소설, 시 등 장르별 문학텍스트에 대한 활용 가능성과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이 제시되었다.

넷째, 비교문학의 입장에서 한국문학 교육을 접근하는 방법도 시도되었다.

이상의 자료들을 통해 총체적으로 볼 때 한국 국내든 중국이든 한국어교육 학계에서 문학교육에 대한 관심이나 연구가 시작단계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문학 교육의 타당성이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문학교육에 대한 이론적 탐구와 실천적 모색이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어교육에서 한국문학 교육의 당위성을 천착할 때 대부분의 논의는 한국어교육의 궁극적 목표를 의사소통능력의 신장에 두고 문학작품을 통해 언어지식 전수와 문화이해를 도모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학 지향 중국대학의 한국어학과의 특수성7)에 주목하여 한국문학 교육은 의사소통능력을 돕기 위한 단순한 도구로만 취급할 것이 아니라, 문학 그 자체로서, 지식으로서 가르쳐져야 한다는 전제 하에 한국학 지향의 대학에서 한국문학 교육을 다루는 차원과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자 한다.

3. 한국학 지향의 해외 대학에 맞는 한국문학 교육의 위상

3.1. 한국학 지향 한국어학과의 특수성

3.1.1 한국학의 내용 범위

일반적으로 한국과 한국문화의 모든 사상(事相)을 연구하는 학문을

7) 졸고(2003) 참조.

가리켜 한국학이라 한다. 〈한국정신〉〈한국문화의 고유성〉을 총체적으로 설명한다는 학문적 목적의식을 바탕으로 한국에 관한 인문·사회·자연과학 분야를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종합적 지역학문이다.

한국적인 것, 한국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려는 한국학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18세기 후반 실학자들을 중심으로 출발한 초기 한국학의 연구 동기는 주로 중국 또는 일본과 구분되는 한국 민족의 개별성·독특성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 뒤 한국학 연구는 문화의 총체적 성격을 밝히는 것보다는 고유의 문자·언어에 대한 연구와 역사적 사실의 확인 내지 재해석으로 초점이 맞추어졌다. 따라서 국어학·국문학·지리학·역사학·고전학 등이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사관(史觀)의 문제가 늘 중요한 쟁점이 되어왔다. 이렇듯 그 성격상 한국에 관한 모든 연구 활동을 포함하지만, 실제로는 인문과학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온 경향이 있어 사회·자연과학 분야까지 포괄하는 총체적 지역학·민족학으로서의 입지확보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3.1.2. 중국의 한국학 전통

한반도와 인접한 중국에서 일찍부터 《사기(史記)》에 〈조선열전(朝鮮列傳)〉을, 《후한서(後漢書)》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한원(翰苑)》 등에는 〈동이열전(東夷列傳)〉을 따로 두어 한국 고대·중세의 풍속·제도·관습 등을 폭넓게 다루어 왔다.

1960년대 이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객관적인 지역학으로서의 한국학 연구에 대한 관심이 일기 시작하였으며, 90년대에 들어서는 한국 국내보다 외국에서 확산되는 추세를 보였다.

중국에서는 1952년 연변조선족자치주가 성립된 뒤 한국학 연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변대학·북경대학·대외경제무역대학·중앙민족대학 등에 조선어학과가 설립된 것을 시작으로 하여 중국에서의 한국학 지향 한국어교육의 전통이 오늘날까지 쭉 이어져 왔다.

3.1.3. 한국학 지향 중국대학 한국어학과의 정체성

지금 중국의 32개 대학교에 4년제 조선(한국)어학과가 설립되어 있고 재학생수도 3000명이 넘는다(김병운, 2003). 이들 한국어 관련 학과의 명칭은 대부분 조선(한국)언어문학학과라 되어 있다. 이러한 학과 명칭은 언어교육에서 특히 문학을 중요시하는 중국의 외국어교육 전통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이들 학과의 교육과정[8]을 보면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한국의 언어와 문학에 관련된 지식을 주 교육내용으로 삼아 가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한국 개관, 경제무역, 역사, 사회, 문화, 관광 등의 내용을 더 추가해 폭넓은 한국학 수준에서의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학 지향의 한국어교육은 학부과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학원 석·박사과정에서 더욱 깊이 있게 취급되고 있다. 현재 석사 학위과정을 개설한 대학교로는 연변대학교, 북경대학교, 대외경제무역대학교, 중앙민족대학교, 낙양군사외국어대학교, 대련외국어대학교, 상해복단대학교, 길림대학교 등 8개 학교가 있으며, 그 가운데 연변대학교와 중앙민족대학교, 낙양군사외국어대학교는 박사 학위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석·박사 학위과정에서는 어학, 문학, 경제, 문화, 번역 등 여러 전공이 마련되어 있는데 최근에 들어와 연구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종전에 조선족 출신 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던 한국학 연구에 한국어를 외국어로 학습한 일반 중국인 고급 인재들이 점점 투입되어 한국학 연구 분야에 새로운 활력이 불어 넣어지고 있다.

3.2. 문학교육의 위상 및 영역

한국학 지향 중국대학 한국어학과의 교육적 성격을 인정한다면 다음에 해결할 과제는 이러한 한국학 지향의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의 위상이 무엇이며 몇 가지 영역으로 나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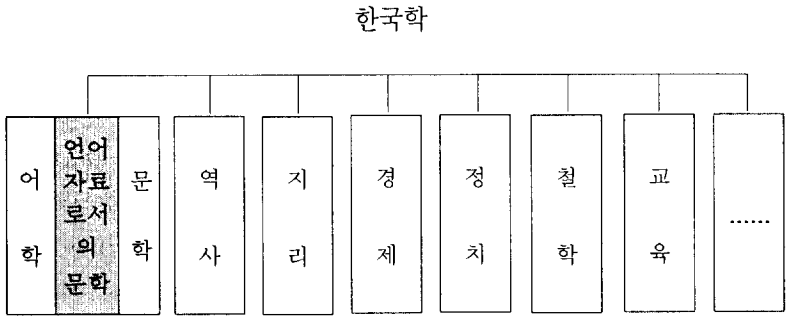
---

8) 졸고(2003)의 부록에 제시된 각 대학교 한국어학과의 교육과정을 참조.

이 문제에 관련해 필자의 기본적인 생각은 한국문학은 한국어교육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칠 때 활용될 수 있는 언어자료로서 가르쳐져야 할 뿐만 아니라 한국학의 하나의 독립된 하위 영역으로서, 그 자체로서 가르쳐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학 교육에서 한국문학이 차지하는 위상을 아래의 〈표 2〉를 통해서 점검해 보기로 한다.

<표 2> 한국학 교육에서 한국문학이 차지하는 위상



위 표에서 제시한 것처럼 한국학 지향 한국어학과의 교육과정에서 문학교육이 차지하는 위상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어학교육의 영역에서 문학작품을 언어 자료로 활용하는 경우고, 다른 하나는 한국학의 독립된 하위 영역으로서 문학 자체의 원리에 의해 교육되는 경우다. 의사소통능력의 신장과 최대화를 목표로 한 언어교육에서 언어자료로서의 문학 작품은 고급스런 언어 학습에 도움이 되므로 실제로 외국어교육의 고급단계에서 중요한 교수·학습의 제재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외국어교육에서 중요한 언어적 자료로써 문학 작품을 활용하는 이유로 J. Collie와 S. Slater가 지적한 가치 있고 권위 있는 자료, 문화적 풍요화, 언어적 풍요화와 개인적 연관(J. Collie & S. Slater, 1987: 3~6)이라는 네 가지 항목은 매우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논의로 외국어교육 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럴 때 언어수

업에서 주로 가르치는 것은 해당 문학작품에 나타난 어휘, 문법요소, 문형 등 언어적 지식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을 언어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라는 네 가지 기능훈련과 결합시켜 다루는 것은 일반적 관례다. 언어자료로서의 문학작품을 선정할 때 텍스트의 언어적인 자질(어휘의 양과 난이도, 문법 요소의 적정성, 방언이나 사투리의 사용 빈도, 언어의 문체적 자질 및 문학적 특징)과 학습자의 관심영역과 경험세계에의 친숙 여부 등에 비중을 많이 두게 된다.

한국학의 하위 영역으로서 한국문학을 가르치는 경우에 주로 한국문학의 실체와 속성에 대해서 교수·학습되므로 그 교육목표[9]는 개별문학으로서의 한국 문학의 내용 및 특성에 대한 이해 증진, 학습자들의 심미적 문학능력의 향상, 그리고 최종적으로 개인적 성장 및 인간다움의 성취 등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표 3〉 참조). 이 때 작품의 선정 기준은 문학사상 비중 있는 작품, 즉 정전이나 한국 문학 전통에서 중요한 일익을 담당한 작품 여부가 될 수 있다. 교수내용으로는 한국문학사, 현대문학, 고전문학, 작가작품론, 개별 장르론, 한중비교문학론 등이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표 3> 한국문학 교육의 교수 학습

한국문학		
영역 구분	언어자료로서의 문학 작품	본격적인 문학
교육 목표	의사소통능력의 신장 및 최대화	a. 학생들로 하여금 한국문학사의 기본적인 흐름(주요 문학 장르, 유파, 중요한 작가 및 그들의 대표작 등)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파악하게 한다. b. 한국문학사상 대표적인 작품에 대한 강독을 통해 학생들의 읽기 능력과 작품 이해력을 향상시키고, 한국적 문화와 정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며 최종적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한국문학에 대한 감상·분석 능력과 독립적인 사고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9) 윤여탁(2003)에서는 이 경우 문학교육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즉 "한국 문학의 실체와 속성에 대해서 교수-학습함으로써 문학 능력을 함양하고, 세계 문학 속에서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해 이해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c. 세계 문학 속의 한국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중한 양국 문학에 대한 대비적 이해를 도모한다. d. 문학교육의 내면화 작용을 통해서 학습자들의 개인 성장을 도모하고 문학 그 자체를 즐겨 향유하는 태도를 형성하게 하고, 나아가 인문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겨냥한다.[1]
교수 내용		어휘, 문법, 문형 등 언어적 지식	한국문학사, 현대문학, 고전문학, 작가작품론, 개별 장르론, 한중비교문학 등
자료의 선정 기준		단계별로 언어적인 자질을 고려함과 동시에 학습자의 경험세계에의 친숙 여부를 중시한다.	정전 및 한국 문학 전통에서 중요한 것.
교육 단계	학부	초·중·고급 전 단계에서 두루 활용된다. 단, 초급의 경우 비교적 쉽거나(동요나 전래 동화 등), 혹은 가공된 텍스트가 적합하다.	외국어로 기술된 것은 중, 고급에서만 가능하다. 모국어로 기술된 것은 초·중·고급 전 단계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대학원	일반적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공동교양과목이나 전공과목으로 취급된다.

3.3. 교수·학습 모델 설계의 다양화 가능성

문학교육의 서로 다른 두 개의 영역에 따라 교수·학습의 방법은 달리 되어야 하며, 아울러 다양한 교수·학습 모델에 대한 설계도 해당 영역의 교육목표를 최대한 성취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

언어자료로서의 문학을 다루는 경우, 중급 및 중급 이상의 기초과목(기초한국어, 중·고급한국어)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때 문학 작품은 언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역할을 하게 되며, 문학을 활용한 언어활동은 말하기, 읽기, 쓰기 등의 실용적인 차원에서 이루

어진다. 기존의 언어 교육에서 개발한 읽기/쓰기, 말하기/듣기, 언어/문화 등 통합교수법이 좋은 교수·학습의 모델이 될 수 있다.

3.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학을 그 자체로서 가르칠 때 교수내용으로는 한국문학사, 현대문학, 고전문학, 작가작품론, 개별 장르론, 한중비교문학론 등 영역을 포괄할 수 있다. 이러한 많은 하위 영역에 대해서 똑 같은 교수·학습모델의 적용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교육효과 면에서 볼 때도 만족스러운 학습 효과를 거두기가 힘들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학을 바라보는 관점부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문학이라는 개념은 크게 두 가지 영역, 즉 언어를 넘어서는 초언어적인 예술의 영역과 언어적인 작품의 영역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김승환(2003)의 논의는 매우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 "작품을 텍스트로 읽고자 한다면 한국어를 학습한 다음에야 해독도 가능하고 문학성도 음미할 수 있다. 반대로 초언어적인 예술로 읽는다면 번역어로 읽어도 문학성의 음미가 가능하다. 따라서 교수학습의 주체는 외국인에게 학습시키고자 하는 교육의 목표지점이 어딘가를 반성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즉 교육하고자 하는 목표가 한국문학이 발현(發現)하는 한국적 가치와 감정 또는 한국의 역사적 경험과 그 표현이라면 교육은 초언어적인 예술의 영역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반면, 교육하고자 하는 목표가 한국문학이 내포하는 한국(어?)에 대한 지식과 문학의 구조적 내용이라면 교육은 언어적 개념인 작품의 영역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 볼 때 문학 그 자체를 위한 교육에서 다시 두 가지 범주의 하위 내용 영역을 나눌 수 있다. 즉 한국문학사와 작가작품론, 개별 장르론, 한중비교문학론 등은 하나의 영역에 속하고 현대문학작품강독 및 고전문학작품강독 등은 다른 하나의 영역에 속한다. 그리고 이들 두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실러버스의 설계는 다음과 같이 된다(〈표4〉참조).

<표4> 한국문학 교육의 영역별 실러버스

구분		영역 1	영역 2
교육 목표		한국 정신사, 문학사조, 정치·사회적인 배경, 한국적 가치, 감정, 역사적 경험 및 그 표현 방식, 정전과 그에 관한 비평 등에 대한 이해 증진	작품 중심의 문학의 구조적 내용
교육 내용 범주		한국문학사, 작가작품론, 개별 장르론, 한중비교문학론 등	현대문학작품강독 고전문학작품강독
자료의 언어 및 수업 진행 언어		모국어 위주	한국어 위주
학습 단계		학부 및 대학원의 전 단계에 가능함. 단, 취급 내용의 깊이와 넓이가 다름.	학부 고(3,4)학년 및 대학원
과목 유형	학부	전공과목: 한국문학사 선택과목: 한중비교문학론 임시강좌: 작가작품론 등	전공과목
	대학원	전공과목: 작가작품론, 개별 장르론, 한중비교문학론 공동교양과목: 한국문학사	전공과목

4. 중국대학에서의 한국문학 교육의 발전 방향

중국의 조선(한국)언어문학과에서는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관련된 지식을 주된 교육 내용으로 하고, 이 밖에 한국의 사회·경제·문화 등을 폭넓게 교육하고 있다. 한국학 지향 대학의 문학교육은 한국학의 하위 영역으로 언어자료로서의 문학교육과 본격적인 문학교육을 하게 된다. 그리고 본격적인 문학교육은 다시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영역 1과 영역 2로 나누어지게 된다. 이는 알기 쉽게 말해 교육목표를 '작품 중심

의 문학의 구조적 내용'의 이해에 목적 두느냐 아니냐에 의해 구별되는 것이다. 따라서 영역 1은 교수·학습이 모국어 위주로 진행되는 것이고 영역 2는 목표언어인 한국어 위주로 수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문학교육은 언어자료로서의 문학작품 교육과, 본격적인 문학교육에서 '작품 중심의 문학의 구조적 내용'의 이해 여부라는 세 가지 영역에서 꾀해지게 된다. 이들은 위상과 영역이 다르므로 교수·학습에서 그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다음에 이들 문학교육의 당면과제와 대안을 몇 가지 제시하기로 한다.

Ⅰ. 학부 및 대학원 등의 단계, 그리고 영역에 따른 교육과정의 구안이 필요하다. 이 때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수학습법, 평가 등 일련의 문제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

보통 한국문학작품선독 등 독립된 과목에서 본격적인 문학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과정이 구체적으로 설계되고 제시되어 있지만, 언어자료로써 문학 작품을 가르칠 경우, 별도의 작품선택 기준, 교육내용, 교수법, 평가방식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다분히 교사 개인의 재량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교육과정의 다른 영역에 비해 적절한 평가방법의 모색은 매우 부진한 상태이다. 평가할 때 모국어로서의 문학교육과 차별화시켜야 되고 난이도의 설정도 적절히 해야 된다.

Ⅱ. 문학사 교재, 문학작품 선독 교재 등의 작품 선정 및 등급화는 개인이 아닌 공동작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작품은 고전과 현대 작품이 다 같이 선정돼야 하고, 등급화의 기준은 계량적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문학사 교재의 편찬이 매우 시급하다. 문학작품 선독 교재로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은 더러 있지만 아직까지 연구자가 아닌,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문학사 교재가 한 권도 없다. 학부와 대학원 학생들을 위한, 전공과목이나 공동교양과목에서 두루 쓰일 수 있는 교재이니

만큼 중국어로 편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Ⅲ. 교수·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수법이 모색 · 활용되어야 한다. 시, 소설, 수필 등 장르별 및 수준에 따른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

교수법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각 대학교 문학수업 담당 교사간의 교류가 활발해져야 한다. 학회 발표를 통해서 교수법의 개발 및 실천 소감을 발표하여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교육현장에서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Ⅳ. 학습자의 발달단계를 고려할 것이며, 학습자의 수요분석을 하여 학습자의 입장을 되도록 많이 반영하도록 한다.

인지발달이론에 의하면 대학생 이상의 성인 학습자에게는 그들의 지적 수준에 맞는 읽을거리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초급 한국어 학습자에게 언어적 난이도가 비교적 쉬운 동요나 전래동화 등 기존의 문학양식을 적절히 소개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만, 내용상 너무 쉽거나 어린이의 인지수준에 머무는 것이라면 자칫 성인 학습자들의 학습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가공된 텍스트, 즉 기존의 문학작품을 초급한국어 학습자의 언어적 수준에 맞게 다시 고쳐 쓴 텍스트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학습자중심의 학습이 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수요에 대한 조사와 분석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특히 고급으로 갈수록 학습자 개개인의 취향과 수요가 점점 분화되고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그들의 경험세계와 관심영역, 희망사항 등에 대해서 파악 분석한 후, 얻은 결과를 기초 데이터로써 문학작품 선택기준의 설정 등과 같은 교육과정의 구안 및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 아직 이런 면의 작업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

Ⅴ. 대학의 한국문학 교육의 교육과정은 불비하나마 갖추어져 있다.

그런데 대학원의 그것은 거의 갖추어져 있지 못한 실정이다. 공동노력으로 이의 체계적인 구안을 서둘러야 한다.

5. 결 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은 몇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가령 한국 내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어학당이나 언어교육원 중심의 한국어교육이 그 하나의 경우고, 다른 하나는 해외에서 행해지는 한국어교육의 경우다. 해외의 경우는 다시 재외동포 자녀들을 상대로 하는 민족어로서의 한국어교육과 순수한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정규대학 학부 및 대학원과정 수준의 한국어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각각의 경우는 언어교수·학습의 주체(교수자, 학습자)와 궁극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획일적인 원리로 이들을 통합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다. 물론 언어교육에 관한 보편적인 논의가 각각의 경우에 다 적용될 수 있지만, 각기 그 특수성에 맞추어져 전개된 논의는 각론의 성격을 띠는 것이기에 해당 분야의 한국어교육 연구의 세분화와 심층적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모든 각론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그 나름대로의 방향성과 체계성이 확립된 다음에야 비로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은 정체성을 가진 학문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바로 이러한 인식에 입각하여 한국학 지향 중국대학에서의 한국어교육의 특수성에 주목하면서 한국문학교육이 차지하는 위상과 문학교육의 차원과 영역 구분에 대해서 분석한 후, 각각의 영역에 적합한 교수·학습 모델의 설계를 개략적으로나마 시도해 보았다. 지금까지 '언어와 문화교육의 일환으로서가 아닌 한국학의 독립된 하위 영역으로서' 라는 논리에서 한국문학교육의 틀 마련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한번도 없었던 점에서 이 논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교수·학습모델을 제시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실례를 만족스럽게 제시하지 못한 것은 본 논의의 한계이다. 이에 대한 진일보한 연구는 다음 과제로 남는다.*

* 본 논문은 2004. 6. 30. 투고되었으며, 2004. 7. 12. 심사가 시작되어 2004. 7. 25.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강승혜(2003), "한국어교육의 학문적 정체성 정립을 위한 한국어교육연구 동향분석", 『한국어교육』 제14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강승혜(2003), "한국문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한국어 학습자 요구분석", 『한국어교육』 제14권 3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강효성(2002), "외국인을 위한 언어교육에서의 문학의 위상", 『제6회 한국어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향 학술토론회 논문집』, 연변과학기술대학.

권혁률(2003), "문학교육을 위한 斷想", 『제7회 한국어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향 학술토론회 논문집』, 연변과학기술대학.

김대행(1997), "영국의 문학교육 — 평가를 통한 언어와 문학의 투시", 『국어교육연구』 4집,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김대행 외(2000), 『문학교육원론』, 서울대 출판부.

김대행(2003), "한국문학사와 한국어 능력",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연구』 6집, 서울대학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도자 과정.

김보경(2003), "한국어 중급 학습자를 위한 문학 텍스트 활용 방안 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승환(2003), "한국문학 교육과 한국어교육의 상관관계와 상치관계(토론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3년도 춘계(제19차)학술대회논문집.

김정우(2001), "시를 통한 한국 문화 교육의 가능성과 방법", 『세계 속의 한국(조선)문학비교연구 논문집』, 중앙민족대학.

노마 히데키(2003), "일본 대학교 대학원에서의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 제14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문복희(2001), "한국 문학을 통한 한국어교육의 실제와 수업방식", 『제5회 한국어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향 학술토론회 논문집』, 연변과학기술대학.

문복희(2003), "문학을 통한 한국어교육", 『제7회 한국어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향 학술토론회 논문집』, 연변과학기술대학.

민현식(2003),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화교육", 외국어교육학회 발표 자료집.

박갑수(1999), "한국어교육의 과제와 전망", 『국어교육연구』 6,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박갑수(2000), "한국어교육과정 구안에 대한 논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연구』, 서울대 사범대학.

박영순(200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월인.

박영순(2003), "한국어 교재의 개발 현황과 발전 방향", 『한국어교육』 제14권 3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박청(2002), "외국인을 위한 한국 소설교육 방안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영빈(2001),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문학교재 개발방안", 『한국어교육을 위한 학술토론회 논문집』, 대외경제무역대학교.
손정일(2003), "중국 대학에서의 한국어교육과정", 『한국어교육』 제14권 3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신주철(2003), "한국 시 교육의 실제", 『한국어교육』 제14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안경화(2001), "속담을 통한 한국 문화의 교육 방안", 『한국어교육』 12-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우한용(2000),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에서 문학의 효용",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연구』 3집, 서울대학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도자과정.
윤여탁(1999),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방법", 『국어교육연구』 6,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윤여탁(2000), "한국어교육에서 문화의 위상과 역할", 『국어교육연구』 7,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윤여탁(2001),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의 제문제", 『한국어문연구』 창간호, 대만 정치대학교한국어학과.
윤여탁(2002), "한국어 문화 교수 학습론", 『21세기 한국어교육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사.
윤여탁(2002), "한국어교육에서 현대문학 정전 연구", 『세계 속의 조선어(한국어) 언어 문학 교양과 교재 편찬 연구』 자료집, 중국 중앙민족대학.
윤여탁(2003), "문학교육과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 제14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윤영(1999), "외국인을 위한 한국소설교육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미혜(2003), "직업을 위한 한국어교육 연구", 『한국어교육』 제14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이선이(2003), "문학을 활용한 한국문화 교육 방법", 『한국어교육』 제14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이성희(1999), "설화를 통한 한국어 문화교육 방안", 『한국어교육』 제10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이은숙(2001), "중국에서의 한국어 문학교육의 문제와 전망", 『한국어교육을 위한 학술토론회 논문집』, 대외경제무역대학교.
이은숙(2001), "외국인을 위한 고급 한국어 교재로서의 『혼불』 고찰", 『제5회 한국어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향 학술토론회 논문집』, 연변과학기술대학.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1995), 『한국학국제학술회의논문집(제2회): 해방 50주년, 세계 속의 한국학』.
장영미(2003), "한국어교육에서의 한국(조선)문학사교수와 교재개발", 『제7회 한국어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향 학술토론회 논문집』, 연변과학기술대학.
정은화(2001), "한국어교육에 있어서 시 교육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항록(2003),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적 논의", 『한국어교육』 제14권 1호, 국제한국

어교육학회.
주옥파(2002), "한중 현대소설 비교를 통한 고급 한국어교육", 『제6회 한국어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향 학술토론회 논문집』, 연변과학기술대학.
주옥파(2003), "중국에서의 한국문학 교육의 특수성",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3년도 춘계(제19차)학술대회 논문집』.
주옥파(2003), "단편소설을 활용한 한국어교육의 내용 연구",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산동대학위해분교.
주은정(2002), "문학텍스트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지수용(2003), "한국문학 교육에 존재하는 문제와 그 원인",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산동대학 위해분교.
진문이(2002),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학 교육", 『제6회 한국어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향 학술토론회 논문집』, 연변과학기술대학.
한상미(1999), "한국어교육에서 언어와 문화의 통합적 교육 방안 — 의사소통 민족지학 연구 방법론의 적용", 『한국어교육』 10-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홍서연(200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을 위한 문학텍스트 분류방안",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홍혜준(2002), "문학을 이용한 한국어 교수법",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2차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수법의 현재와 미래』.
황충기(2002), 『한국학사전』, 국학자료원.
Brumfit, C. and Carter, R.(1986), Literature in Language Teaching, Oxford University Press.
Byram, M.(1989), Cultural Studie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Multilingual Matters.
Carter, R. and Long, M. N.(1991), Teaching Literature, Longman.
Collie, J. and Slater, S.(1987), Literature in the Language Classroom: A Resource Book of Ideas and Activit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Hills, J.(1986), Using Literature in Language Teaching: Teaching Literature in the Language Classroom, Macmillan.
Lazar, G.(1993), Literature and Language Teaching : A Guide for Teachers and Trainers, Cambridge University Press.

〈초록〉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학 교육에 대한 반성
- 한국학 지향 중국대학의 경우를 중심으로 -

주옥파

21세기에 접어들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이 한국의 안팎에서 활발히 전개되어 세계적으로 한국어교육의 일대 전성기를 이루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은 전 세계 해외 한국어교육의 선두주자로 부상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어교육에 대한 본격적인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는 한국 국내와 해외에 여러 가시적인 성과로 축적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문학 교육'에 관한 연구는 다른 연구 영역에 비해 극히 부진한 상태에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학 지향 중국대학의 한국어학과의 특수성에 주목하여 한국문학교육은 의사소통능력을 돕기 위한 단순한 도구로만 취급할 것이 아니라, 문학 그 자체로서, 지식으로서 가르쳐져야 한다는 전제 하에 한국학 지향의 중국대학에서 한국문학 교육의 차원과 그것을 다루는 영역과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다.

한국학 지향 한국어학과의 교육과정에서 문학교육이 차지하는 위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어학교육의 영역에서 문학작품을 언어 자료로 활용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학의 독립된 하위 영역으로서 문학 자체에 대한 교육이다. 본고에서는 우선 이들 두 가지 영역에 각각 적합한 교육목표와 작품선정 기준, 교육내용을 제시한 후, 다양한 교수·학습모델의 설계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핵심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한국학 지향, 중국에서의 한국문학 교육, 한국문학 교육의 위상, 영역, 교수·학습 모델

〈Abstract〉

A reconsideration on Korean Literature Education for foreigners - centering around Korean Studies-oriented Chinese college's case

Zhou, Yubo

Since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the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as a foreign language has made a remarkable development . It reaches a new level around the world. Especially in china it has been emerging as a forerunner among the countries outside of Korea.

During this period, the studies on Korean Language Education have achieved some good progresses as well both in theoretical and practical areas. However, the pace for the studies on Korean Literature Education is relatively slow as compared with the studies in other areas. Korean Studies-oriented Chinese colleges have special characteristics. That means the purpose of Korean Literature Education is not only to help improving student's abilities for communication, but also to give them a general point of view to make deepen understanding on Korean Literature as literature itself. A study on the different levels, fields and methods about Korean Literature Education has been presented in the paper.

In terms of Korean Studies-oriented Chinese college, the levels of Literature Education can be divided into two fields. One is the case of teaching literature as language materials, the other is teaching literature by the principles of itself as an independent part of Korean Studies. In this paper, the goals of Literature Education, principles for selecting literary works and contents of instruction are discussed, then some of models about instruction and learning are suggested.

【key 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Korean Studies-oriented, Korean Literature Education in China, Korean Literature Education's Status, fields and methods.